

모호성과 맥락고정논변* †

이 준 호

【요약문】 나는 이 논문에서 먼저 모호성에 대한 경계이동이론(또는 맥락주의)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인 맥락고정논변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맥락고정논변의 기본 아이디어는 맥락을 고정해도 모호성은 남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한 많은 반론들을 여러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경계이동이론의 옹호자들이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계이동이론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특이할 정도로 경계이동이론의 지지자들은 이 논변에 대해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커만과 그리너프는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제안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이들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발전시킬 것이다.

【주요어】 모호성, 맥락고정논변, 맥락주의, 경계이동이론, 파라

* 접수일: 2010. 12. 23.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1. 2. 2. 게재확정일: 2011. 2. 9.

† 본 논문에 제시된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강진호 선생님, 시더리츠(Mark Siderits) 선생님과 토론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두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자연언어의 거의 대부분의 술어들은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호성의 본성을 해명하는 것은 언어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나는 모호성에 대한 경계이동이론¹⁾(Boundary-Shifting theories of vagueness)(또는 맥락주의)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인 맥락고정논변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²⁾ 맥락고정논변의 기본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맥락을 고정해도 모호성은 남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한 많은 종류의 반론들을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할 정도로 경계이동이론의 지지자들은 이 단순한 논변에 대해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경계이동이론의 반대자들은 경계이동이론의 지지자들이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상황에서 에커만(Åkerman)과 그리너프(Greenough)는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이들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발전시킬 것이다.

1. 모호성의 세 가지 특징

일반적으로 ‘더미이다’, ‘키가 크다’, ‘대머리이다’ 등과 같은 전

-
- 1) 이 논문에서 ‘맥락주의’라는 익숙한 용어가 아닌 ‘경계이동이론’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채택한 것은 경계이동이론자들 가운데 스스로 맥락주의자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파라(Fara)는 자신이 맥락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맥락주의 대신에 경계이동이론이라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겠다.
 - 2) 모호성과 관련된 국내논문으로는 김한승(2004), 이진희(2010), 정인교(2003) 등이 있으나 모호성에 대한 경계이동이론적 접근법에 대한 논문은 아직 없는 것 같다.

형적인 모호한 술어들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Keefe 2000, Åkerman and Greenough 2010).

첫째, 모호한 술어는 경계 사례(Borderline cases)를 가진다. 경계 사례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가 어떤 술어 'F'의 경계 사례이다 iff x는 분명히(definitely) F도 아니고 분명히 not-F도 아니다(-DFx & -D-Fx).

여기서 '분명히'라는 개념을 형식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D(definite)-연산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기호 'D'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경계사례를 정의하기 위해 D-연산자를 도입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많은 철학적 진영들은 D-연산자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림으로써 경계사례에 대해 각각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 가령, 초평가주의(Supervaluationism)에 따르면 'Fa'가 모든 허용가능한 정확화(precisification)에서 참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DFa'는 참이다. 윌리엄슨(Williamson)식의 인식주의(Epistemicism)에 따르면 'Fa'가 알 수 있게(knowably) 참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DFa'는 참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호성의 첫 번째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를 '경계사례 문제'라고 부르겠다.

둘째, 모호한 술어는 흐린(fuzzy)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술어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흐린 경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이를 모호한 술어는 알려진 경계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 그리고 이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를 '알려진-경계-없음 문제'라고 부르겠다.

셋째, 모호한 술어는 '더미의 역설'(the paradox of the heap)을 허용한다. 더미의 역설은 다음의 네 가지 전제로 이루어져 있다.

- (i) Fa (머리카락이 1개인 a 는 대머리이다)
- (ii) $(\forall x)(\forall y)((Fx \ \& \ Rxy) \rightarrow Fy)$ (모든 x, y 에 대하여, x 가 대머리이고 y 가 x 보다 머리카락이 하나 더 많다면, y 도 대머리이다)
- (iii) $\sim Fz$ (머리카락이 20만개인 z 는 대머리가 아니다)
- (iv) $(\exists b_1 \dots b_n)(Rab_1 \ \& \ Rb_1b_2 \ \& \ \dots \ \& \ Rb_{n-1}b_n \ \& \ Rbnz)$ (a 부터 z 까지 더미시리즈가 있다)

더미의 역설에 대한 반응은 크게 정합론과 비정합론으로 나뉘어진다. 정합론은 위의 네 가지 전제 중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역설을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비정합론은 네 가지 전제 중 어느 것도 부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일상언어 자체가 일종의 비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정합론을 지지하고, 정합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 중 대부분은 전제 (ii)를 거부함으로써 역설을 해결하려고 한다. 앞으로 전제 (ii)를 ‘더미 전제’라고 부르겠다. 여기서 관심 있는 경계이동이론도 이런 입장에 속해 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더미 전제를 거부함으로써 역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왜 (더미 전제가 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미 전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혹은 왜 더미 전제에 이끌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해명하는 문제를 앞으로 ‘더미직관의 문제’라고 부르겠다.

2. 모호성에 대한 경계이동이론

경계이동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위에서 제시한 모호성의 세 가지 문제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었다. 가령, 초평가주의³⁾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직 첫 번째 문제에

3) 나는 여기서 파인(Fine 1975)과 키프(Keefe 2000)의 초평가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해서만 대답을 주고, 인식주의⁴⁾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만 대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계이동이론은 자신들이 위의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점에서 자신들의 이론이 여타의 이론에 비해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경계이동이론이 여타의 이론에 비해 가지는 주된 장점은 오직 경계이동이론만이 더미직관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경계이동이론이 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떤 설명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경계이동이론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독창적인 대답을 주지 않는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경계이동이론가의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고전적인 이치 논리학을 받아들이는 파라(Fara 2000)는 이에 대해 인식주의자와 같은 인식적 설명을 제공한다. 강한 클리니(Kleene) 진리표를 이용한 삼치 논리를 받아들이는 솜즈(Soames 1999)는 의미론적 결핍과 같은 식의 의미론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초평가주의적 논리와 의미론을 받아들이는 샤피로(Shapiro 2006) 역시 일종의 초평가주의적 의미론에 기반한 의미론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경계이동이론가들의 독창성은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와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한 의미론적 설명에 있다. 경계이동이론은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관용원칙’을 제시하고 모호성에 대한 의미론이 관용 원칙(Tolerance Principle)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

4) 나는 여기서 윌리엄슨(Williamson 1994)의 인식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5) 관용 원칙에 대한 정식화는 철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음의 원칙들은 관용 원칙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 1) 파라의 유사성 제한: ‘만약 두 대상이 두드러지게 유사하다면, 하나는 모호한 술어의 외연(또는 반대외연)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모호한 술어의 반대외연(또는 외연)에 속할 수 없다’(Fara 2000 p. 57)
- 2) 라프만(Raffman)의 IP*: ‘모든 n 에 대하여, n 번째 패치와 $n+1$ 번째 패치가 쌍으로 판단되는 한에 있어, 만약 n 번째 패치가 빨갛게 보이면 $n+1$ 번째

장한다.⁶⁾ 거칠게 말하면 관용원칙은 ‘우리가 더미 시리즈에서 인접한 두 사물을 고려하는 각각의 구체적 맥락에서 우리는 그 두 사물을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용원칙을 의미론에 포함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두 사물을 같은 범주로 분류할 때 이것이 단지 심리적인 경향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맥락에서 두 사물은 같은 의미론적 범주에 속함을 뜻한다.⁷⁾ 일단 우리가 모호성에 대한 의미론에 관용 원칙을 포함시킨다고 하자.

이제 우리는 관용원칙에 호소해서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와 ‘더미직관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 모호한 술어는 왜 알려진 경계를 가지지 않는가? 그것은 관용 원칙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는 곳에 경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한 술어 ‘T’의 경계가 T₂₃₈와 T₂₃₉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더미

패치도 빨강계 보인다’(Raffman 1994, p. 47)

- 6) 경계이동이론에 대한 반대자들은 왜 모호성에 관한 의미론에 관용원칙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파라의 대답은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에 따르면, 우리는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 비용이 구별 효용보다 큰 맥락에서 더미시리즈를 구성하는 인접한 쌍들 간의 사소한 차이를 무시하고 그들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게 된다.
- 7) 모호한 술어의 외연이 능숙한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데는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모호한 술어의 외연이 언어적 성향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지점에서 경계이동이론의 반대자들은 왜 모호한 술어의 외연이 한 맥락 내의 발화자 또는 대화참여자들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지 반문할 수 있다. 반대자들의 제안에 따르면, 모호한 술어의 외연은 언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언어적 성향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대머리이다’, ‘키가 크다’ 등과 같은 전형적인 모호한 술어는 넓은 의미의 맥락의존성을 보이는데 반대자들의 제안에 따를 경우 모호한 술어가 보이는 이러한 맥락의존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호한 술어의 외연은 한 맥락 내의 발화자 또는 대화참여자들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리즈에서 각각의 인접한 쌍을 고려함으로써 경계를 찾으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처음에 T_1 과 T_2 사이에 경계가 있는지 고려하고 그 곳에 경계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T_2 와 T_3 사이에 경계가 있는지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T_{238} 와 T_{239} 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T_{238} 와 T_{239} 를 고려할 때 경계는 그 곳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관용원칙 때문에 우리는 T_{238} 와 T_{239} 를 같은 범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계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호한 술어의 경계를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더미 전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이동이론가들은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먼저 파라에 따르면 그 이유는 우리가 더미전제의 예화를 고려하는 모든 맥락에서 더미 전제의 예화들이 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대답은 파라와 같이 이치 논리학을 받아들이는 경계이동이론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대답이다.⁸⁾ 가령, 강한 클리니 진리표를 이용한 삼치논리를 받아들이는 솜즈는 이 대답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강한 클리니 진리표에 따르면, 연결사 ‘ \rightarrow ’의 두 논항이 모두 미결정일 경우 전체 조건문의 진리치도 미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솜즈와 라프만(Raffman)에 따르면, 우리가 더미 전제를 받아들이려

8) 사실 루카시에비치(Lukasiewicz)의 진리표를 이용한 삼치 논리를 받아들이는 철학자도 이 대답을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루카시에비치의 진리표에 따르면 연결사 ‘ \rightarrow ’의 두 논항이 모두 미결정일 경우 전체 조건문은 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모든 형태의 더미의 역설에 대해 파라가 제안한 대답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더미 전제는 연언과 부정을 이용해서도 구성될 수 있는데 루카시에비치의 진리표를 이용할 경우 연언과 부정을 이용해 구성된 더미 전제의 예화 가운데 참이 아닌 예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카시에비치의 진리표를 이용한 삼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경계이동이론가는 지금까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자.

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미전제와 관용원칙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미 시리즈 가운데 어디 곳에도 모호한 술어의 경계는 없다’(=더미 전제)는 강하고 거짓된 주장과 ‘더미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고려 중인 어느 곳에도 모호한 술어의 경계는 없다’(=관용 원칙)는 약하고 참인 주장을 혼동하기 때문에 더미 전제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솜즈는 파라의 답변을 사용할 수 없는 반면, 파라는 솜즈의 답변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3. 맥락고정논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경계이동이론은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와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한 의미론적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다. 특히 경계이동이론이 다른 경쟁이론에 비해 가지는 주된 장점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오직 경계이동이론만이 더미직관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맥락고정논변이라고 하는 경계이동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이 있다. 이 반론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 (Williamson(1994), Heck(2003), Keefe(2000, 2007), Stanley(2003, 2005)). 맥락고정논변의 기본 아이디어는, 맥락을 고정해도 모호성은 남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

(전제1) 경계이동이론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모호성은 일종의 맥락의존성이다.

(전제2) 만약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이 고정되면, 맥락의존성⁹⁾은 사라진다.

9) 보통 어떤 언어적 표현이 맥락의존적(context-dependent)이라거나 맥락민감하다(context-sensitive)는 것은 발화맥락에 상대적으로 언어적 표현의 카플란적 내용(content)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언어적 표현이 상대적(relative)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 평가 상황에 상대적으로 다른 외연을

- (전제3) 그런데 설사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이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모호성은 남는다.
- (전제4) 맥락고정된 모호한 표현은 모호하지만 맥락독립적이다.
((전제2), (전제3)으로부터)
- (결론) 그러므로 경계이동이론은 거짓이다.

맥락고정논변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계이동이론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이동이론가들은 이 논변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경계이동이론에 대한 반대자들은 경계이동이론에 대한 지지자들이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커만과 그리너프는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답변은 크게 보아 (전제1)을 거부하는 인식적 맥락주의의 입장, (전제2)를 거부하는 극단적 맥락주의의 입장, (전제3)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답변을 하나씩 검토해보자.

4. 전제1의 거부: ‘맥락의존성이 아닌 모호성이 존재한다’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대답으로 가능한 첫 번째 선택지는 전제(1), 즉 ‘경계이동이론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모호성은 일종의 맥락의존성이다’는 전제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나도 이 입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에커만과 그리너프의 답변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식적 맥락주의가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기 전에 그들이 맥락고정논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맥락빨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논의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맥락의존성을 (좁은 의미가 아니라) 상대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겠다.

‘짱다’라는 새로운 술어를 도입하도록 하자. ‘맥락빨짱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S) ‘맥락빨짱다’(is a reddie)는 x 에 대해 참이다 iff ‘맥락 C_0 에서 빨짱다’는 x 에 대해 참이다 iff ‘빨짱다’(맥락 C_0 에서 사용된)는 x 에 대해 참이다 (Åkerman and Greenough 2010, p. 281).

다음으로 (S)에 나타난 세 가지 대상언어 술어들 ‘맥락빨짱다’, ‘맥락 C_0 에서 빨짱다’, ‘빨짱다’(맥락 C_0 에서 사용된)이 메타언어 술어인 ‘ x 는 맥락 C_0 에서 “빨짱다”를 만족시킨다’와 동연적 (co-extensive)이라는 데 주목하자. 그렇다면 이제 맥락고정논변의 지위는 분명한 것 같다. 에커만과 그리너프가 보기에 맥락고정논변은 어떤 종류의 고차(higher-order) 모호성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인식적 맥락주의는 일차 모호성에 대해서는 의미론적 설명을 제공하고 고차 모호성에 대해서는 인식적 설명을 제공하려는 입장이다. 즉, 인식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일차 모호성은 맥락의존적이지만 고차 모호성은 맥락독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고정한 술어의 경우 날카롭고 변하지 않는 외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맥락고정한 술어의 경우 날카롭고 변하지 않는 외연을 가지고 있다면 인식적 맥락주의가 맥락고정된 술어의 모호성에 관해 어떤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적어도 경계사레 문제와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에 관해서는 인식적 맥락주의가 윌리엄슨 식의 인식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식의 설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먼저 경계사레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a_1 부터 a_{500} 까지의 더미시리즈가 있고, ‘맥락빨짱다’의 경계가 a_{204} 와 a_{205} 사이에 있다고 하자. 즉, a_1 부터 a_{204} 까지는 ‘맥락빨짱다’

의 외연에 속하고 a_{205} 부터 a_{500} 까지는 ‘맥락빨강다’의 반대의연에 속한다고 하자. 그리고 S가 이 가운데 어떤 특정한 대상 a_{200} 이 맥락고정된 술어 ‘맥락빨강다’의 외연에 속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믿음이 참이라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적 맥락주의는 S의 믿음이 지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때 ‘맥락빨강다’는 술어의 외연은 맥락 C_0 하의 화자(혹은 대화참여자들)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 결정되는데 맥락 C_0 하의 화자의 언어적 성향은 (양상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호한 술어의 경계 역시 (양상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 a_{200} 은 맥락빨강다’는 S의 믿음이 현실세계에서 참일지라도 이 믿음은 매우 쉽게 거짓일 수 있다. 만약 맥락 C_0 하의 화자의 언어적 성향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a_{200} 은 ‘맥락빨강다’의 반대의연에 속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a_{200} 은 분명히(definitely) 맥락빨강지도 않고 분명히 맥락빨강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인식적 맥락주의는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에 대해서도 경계사례 문제에 대한 답과 유사한 종류의 대답을 줄 수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a_1 부터 a_{500} 까지의 더미시리즈가 있고, ‘맥락빨강다’의 경계가 a_{204} 와 a_{205} 사이에 있다고 하자. 즉, a_1 부터 a_{204} 까지는 ‘맥락빨강다’의 외연에 속하고 a_{205} 부터 a_{500} 까지는 ‘맥락빨강다’의 반대의연에 속한다고 하자. 그리고 S가 ‘ a_{204} 와 a_{205}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참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비록 S의 믿음이 참일지라도, 이 믿음 역시 지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S의 믿음은 매우 쉽게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맥락 C_0 하의 화자의 언어적 성향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a_{204} 와 a_{205} 사이에 경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맥락빨강다’의 알려진 경계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인식적 맥락주의가 더미직관의 문제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인식적 맥락주의가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성공적인 대답이 되기 위해서는 맥락고정된 술어의 모호성과 관련된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커만과 그리너프는 두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경계이동이론적 대답이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인식론적인 대답이다. 우선 첫 번째 대답부터 살펴보자. 이를 위해 에커만과 그리너프의 약한 관용원칙(Weak Tolerance, WT)과 강한 관용원칙(Strong Tolerance, ST)부터 살펴보자. 그들은 각각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약한 관용원칙(WT): x 와 x' 가 맥락 C 에서 쌍으로 함께 고려되고 'F이다' (C 에서 사용된)가 x 에 대해서 참이고 'F이다' (C 에서 사용된)가 x' 에 대해 거짓인 (x' 가 F로부터 $-F$ 까지 이어지는 더미시리즈에서 x 와 인접할 때) 어떤 발화 맥락 C 와 x 는 존재하지 않는다.

강한 관용원칙(ST): 'F이다' (C 에서 사용된)가 x 에 대해서 참이고 'F이다' (C 에서 사용된)가 x' 에 대해 거짓인 (x' 가 F로부터 $-F$ 까지 이어지는 더미시리즈에서 x 와 인접할 때) 어떤 발화 맥락 C 와 x 는 존재하지 않는다. (Åkerman and Greenough 2010, p. 284)

그리고 (솜즈와 같은 경계이동이론가들이 우리가 솜즈 식의 관용원칙(TP)과 더미전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듯이) 에커만과 그리너프는 우리가 약한 관용원칙과 강한 관용원칙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에커만과 그리너프의 말대로 만약 우리가 약한 관용원칙과 강한 관용원칙을 혼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강한 관용원칙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강한 관용원칙은 모든 맥락에서 모호한 술어 'F'의 경계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강한 관용원칙은 어떤 특정한 맥락 하에서도 경계가 없다는 것을

함축하게 된다. 정리하면 우리는 약한 관용원칙과 강한 관용원칙을 혼동해 강한 관용원칙을 참으로 받아들이는데, 강한 관용원칙은 어떤 특정한 맥락 하에서도 모호한 술어 'F'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맥락을 고정한 모호한 술어 역시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답은 일종의 관용원칙(그들의 WT)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이동이론적 대답이고, 이 대답이 맞다면 설득력 있는 대답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에커만과 그리너프의 약한 관용원칙은 거짓이기 때문이다.¹⁰⁾ 그들의 약한 관용원칙에 따르면, 모든 맥락에서 더미시리즈의 인접한 두 대상이 쌍으로 고려되면 두 대상은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례가 제시될 수 있다. 가령, 세인즈베리(Sainsbury 1990, pp. 259-260)의 미술용품 가게 사례를 고려해보자. 미술용품 가게의 주인이 물감을 팔기 위해 빨간 물감과 노란 물감을 나누고, 빨간 물감은 '빨강'이라고 표시한 진열장에 노랑 물감은 '노랑'이라고 표시한 진열장에 두었다고 하자. 이 때 '빨강'이라고 표시된 진열장에 놓인 물감 중 가장 노란 물감과 '노랑'이라고 표시된 진열장

10) 내가 보기에, 에커만과 그리너프의 WT는 관용원칙들 가운데 가장 강한 버전이다. WT는 '모든 맥락에서 더미시리즈의 인접한 두 대상이 쌍으로 고려되면 두 대상은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구별비용이 구별효용보다 큰 모든 맥락에서 더미시리즈의 인접한 두 대상이 쌍으로 고려되면 두 대상은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더미의 역설이 고려되는 이 맥락에서 더미시리즈의 인접한 두 대상이 쌍으로 고려되면 두 대상은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등과 같은 여러 버전의 관용원칙이 있을 수 있다. WT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다른 경계이동이론가들의 관용원칙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WT를 대체할 새로운 관용원칙을 필자가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이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어느 버전의 관용원칙이 가장 우월한 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논의하지 않겠다.

에 놓인 물감 중 가장 빨간 물감 사이에는 보통 상황에서 육안으로 볼 때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미술용품 가게 주인이나 손님은 이 두 물감을 쌍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락에서 한 물감은 빨간 물감이고 다른 물감은 노란 물감인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와 같이 **구별효용이 구별비용보다 큰 맥락**에서는 더미시리즈에서 인접한 대상들이 쌍으로 고려되더라도 두 대상은 각각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¹¹⁾

다음으로 두 번째 대답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대답은 순수한 인식론적인 대답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대답이 직면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전통적인 인식주의자들은 경계사례 문제와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공하지만 더미직관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에커만과 그리너프는 이런 상황에서 맥락고정된 술어의 모호성에 의해 제기된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적 대답을 제시한다. 그 대답은 바로 우리가 ‘모호한 술어는 알려진 경계가 없다’는 사실과 ‘모호한 술어는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혼동하기 때문에 더미 전체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대답은 틀리거나 최

11)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해주셨다. 만약 에커만과 그리너프의 WT가 거짓이라면 WT를 약화시켜 WT*로 만들고 일반인들이 WT*와 ST를 혼동한다고 하면 설득력 있는 대답이 될 것이다. 이를 지적해주신 심사위원께서는 WT*가 ‘구별효용이 구별비용보다 큰 모든 맥락에서 더미시리즈의 인접한 두 대상이 쌍으로 고려되면 두 대상은 같은 범주에 속한다’와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정식화에도 문제가 있다. 일상인들은 WT*를 (암묵적으로라도) 알거나 모를 것이다. 먼저 일상인들이 WT*에 대해 암묵적으로라도 안다면, ST와 혼동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ST는 WT*와 혼동되기에는 너무 강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상인들이 WT*에 대해 모른다면 철학자들은 일상인들이 WT*와 ST를 혼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다. 우리가 어떤 두 명제 A와 B를 혼동하려면 최소한 두 명제에 대해 암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한 불완전한 대답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정확한 경계가 알려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딘가에 경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미 전제를 받아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다음의 사례를 고려해보자.

피로도 사례) 재료과학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가 재료의 피로도¹²⁾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 교수는 재료의 피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샘플 재료에 그 재료의 파괴하중 미만의 힘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다. 보통 우리는 그 샘플 재료가 정확히 언제 파괴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더미 전제를 받아들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n 에 대하여, 샘플 물질에 (같은 힘과 지속시간으로) n 번 힘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면 $n+1$ 번 힘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사례는 알려진 경계는 없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분명 어떤 술어의 경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례이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알려진 경계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미 전제를 받아들려고 하는 원인이 아니거나, 최소한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왜 우리가 모호한 술어의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위의 피로도 사례는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 인식적 맥락주의가 사용할 수 있는 인식적 대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설사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한 순수한 인식적 대답이 위에서 제기된 나의 비판으로부터 옹호될 수 있을 지라도, 만약 에커만과 그리너프가 경계이동이론을 진정으로 옹호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한 순수한 인식적 대답을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윌리엄슨과 같은 인식주의자도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12) 피로 파괴란 어떤 재료에 그 재료의 파괴하중보다 훨씬 낮은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되기 때문이다. 만약 경계이동이론 이외의 다른 입장들도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경계이동이론의 주된 장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 전제2의 거부: ‘맥락이 고정되어도 맥락의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대답으로 가능한 두 번째 선택지는 전제 (2), 즉 ‘만약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이 고정되면, 맥락의존성은 사라진다’는 전제를 거부하는 극단적 맥락주의의 입장이다. 극단적 맥락주의는 맥락에 대한 일종의 유형이론적 접근법을 통해 전제 (2)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가령, ‘키가 크다’의 위계1-맥락은 대상언어 술어 ‘키가 크다’가 사용되는 맥락이고, 위계2-맥락은 메타언어 술어 ‘x는 맥락 C¹ 하에서 “키가 크다”를 만족시킨다’가 사용되는 맥락이고, 위계3-맥락은 메타메타언어 술어 ‘y는 맥락 C² 하에서 ‘x는 맥락 C¹ 하에서 “키가 크다”를 만족시킨다’를 만족시킨다’가 사용되는 맥락이다. 극단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맥락을 고정해도 모호성은 남는다’는 주장은 ‘위계1-맥락을 고정해도 모호성은 남는다. 그러므로 모든 모호성이 위계-1 맥락의존성은 아니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즉, 극단적 맥락주의는 무한히 많은 위계의 모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극단적 맥락주의에서 고차모호성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은 유형이론적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따르면, 발화맥락은 위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위계-1 발화맥락, 위계-2 발화맥락 기타 등등. 따라서 의미론적 폐쇄성은 거부되고 한층 더 풍부한 메타언어들의 위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맥락 C₀는 위계-1 발화맥락이다. 반면, 술어 ‘x는 맥락 C₀에서 “빨갳다”는 술어를 만족시킨다’가 외연을 결정하는 발화맥락은 위계2-발화맥락

이다. 이러한 종류의 극단적 모델은 단순한 반론을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맥락의 모든 특성을 고정시켜도 모호성은 남는다. 그러므로 모호성은 맥락민감성이 아니다’고 할 때, 이는 단순히 ‘위계1-맥락의 모든 특성을 고정시켜도 모호성은 남는다. 그러므로 모든 모호성이 위계1-맥락민감성은 아니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Åkerman and Greenough 2010, p. 286)

그러나 이 입장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다. 우리는 모든 위계의 맥락에 대해 양화할 수 있거나 없다. 먼저 만약 우리가 모든 위계의 맥락에 대해 양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키가 크다’의 외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키가 크다’의 외연을 고정하기 위해 위계1-맥락을 고정해도 위계1-맥락 하의 ‘키가 크다’는 여전히 위계2-맥락의존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계2-맥락을 고정해도 ‘키가 크다’는 여전히 위계3-맥락의존적일 것이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맥락의존성은 무한히 후퇴하면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오직 무한히 많은 위계의 맥락을 모두 양화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키가 크다’의 외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모든 위계의 맥락에 대해 양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강화된 버전의 맥락고정논변을 정식화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모든 위계의 맥락을 고정해도 모호성은 남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6. 전제3의 거부: ‘맥락을 고정하면 모호성이 사라진다’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대답으로 가능한 세 번째 선택지는 전제 (3), 즉 ‘설사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이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모호성은 남는다’는 전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언뜻 보기에 굉장히 반직관적이다. 그러므로 전제 (3)을 거부하려면 왜 우리의 직관이 틀렸는지 그럴 듯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맥락’이 전문용어이므로 맥락 고정된 술어 역

시 전문용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문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이론 내에서 하는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과학적인 이론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용어에 대해 어떠한 선천적인 직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¹³⁾ 가령, 우리는 물리이론을 배우기 전에 물리이론의 전문용어인 ‘운동량’이나 ‘양자요동’에 관해서 어떠한 직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에커만과 그리너프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피력한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단순한 반론(=맥락고정논변)의 요지라면,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한다. ‘맥락 C₀에서 빨강다’는 술어가 진짜로 더미의 역설을 허용하는지 직접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즉각적인 생각은 이 술어가 이론적 술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술어는 더미의 역설을 허용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필수적인 직관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맥락 C₀에서 빨강다’가 진짜로 더미의 역설을 허용한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우리가 (S)를 고려한다면, 그 의심은 술어 ‘맥락빨강다’와 술어-맥락 순서쌍 ‘빨강다’(맥락 C₀에서 사용된)까지 확장될 지도 모른다. 더미의 역설을 허용한다는 것이 모호성의 필요조건이라면, 단순한 반론은 소멸된다. 왜냐하면 맥락을 고정하면, 모호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Åkerman and Greenough 2010b, pp. 281-282)

물론 나는 ‘맥락’이 의미론 내의 전문용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맥락 고정된 술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직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화 맥락을 자연언어를 이용해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전제 (3)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술어 ‘맥락 C₀에서 키가 크다’에서 ‘C₀’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락 C₀에서 키가 크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¹³⁾ 여기서 나는 촘스키(Chomsky)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Chomsky(2000). pp. 148-149 참조

다. 그렇지만 이 때 맥락 C_0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상세하게 표현될 수 있다. ‘백악관에서 2010년 8월 31일 오전 11시에 오바마에게 인간으로서 (기타 등등) 키가 크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술어에 대해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다면 ‘맥락 C_0 에서 키가 크다’나 ‘키가 크다’(맥락 C_0 에서 사용된)에 대해서도 동일한 직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7.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새로운 경계이동이론적 대답

지금까지 우리는 맥락고정논변에 대한 에커만과 그리너프의 세 가지 답변을 살펴보았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맥락고정논변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 (전제1) 경계이동이론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모호성은 일종의 맥락의존성이다.
- (전제2) 만약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이 고정되면, 맥락의존성은 사라진다.
- (전제3) 그런데 설사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이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모호성은 남는다.
- (전제4) 맥락고정된 모호한 표현은 모호하지만 맥락독립적이다. ((전제2), (전제3)으로부터)
- (결론) 그러므로 경계이동이론은 거짓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전제2), (전제3)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전제1)을 성공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는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 경계이동이론의 경쟁이론들이 사용할 수 없는 대답(다시 말하면 오직 경계이동이론만 사용할 수 있는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 오직 경계이동이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대답을 제시함으로써 (전제1), 즉 ‘경계이동이론에 따르면 모

든 종류의 모호성은 일종의 맥락의존성이다'는 전제를 성공적으로 거부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맥락을 고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계사례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적 맥락주의와 마찬가지로) 인식적 대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와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이동이론적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⁴⁾ 그러면 지금부터 (전제1)을 거부하는 혼합적 관점이 어떻게 맥락을 고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와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지 설명해보겠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맥락고정된 술어에 대해 직관을 가지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가령, 우리는 마이클 조던이 어떤 맥락 C_0 (대화 참여자는 오바마와 그의 아내, 시간은 2010년 8월 31일 오후 7시, 장소는 백악관 내의 한 식당, 맥락적으로 두드러진 비교집단은 인간 등인 맥락) 하에서 술어 '키가 크다'를 만족시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내가 보기에 우리는 먼저 오바마와 그의 아내가 2010년 8월 31일 오후 7시에 백악관 내의 한 식당에서 사람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을 상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발화자(또는 대화참여자)의 언어적 성향이 어떠할지, 그가 속한 언어공동체가 그 언어적 성향을 승인할지 판단함¹⁵⁾으로써 마이클 조

14) 여기서 고차 모호성에 대해 나의 제안과 에커만과 그리너프의 인식적 맥락주의가 어떤 대답을 제시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식적 맥락주의는 고차 모호성의 경계사례문제와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적 대답을 제시하고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이동이론적 대답 또는 인식적 대답을 제시하려는 입장이다. 나의 제안은 경계사례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적 대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식적 맥락주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의 제안은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와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경계이동이론적 대답을 제시하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인식적 맥락주의가 나의 비판으로부터 옹호될 수 있을지라도 나의 제안은 인식적 맥락주의에 비해 보다 일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던이 맥락 C_0 하에서 ‘키가 크다’는 술어를 만족시키는지 아닌지 아는 것 같다. 그런데 발화자(또는 대화참여자)의 언어적 성향에 대한 가장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석¹⁶⁾은 발화자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맥락 C_0 하에서의 문장 ‘마이클 조던은 키가 크다’의 참을 관련된 반사실적 조건문 ‘만약 오바마와 그의 아내가 2010년 8월 31일 오후 7시에 백악관 내의 한 식당에서 사람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마이클 조던이 키가 크냐는 질문(마이클 조던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들이 속한 언어공동체 역시 그들의 언어적 성향을 승인할 것이다.’의 참으로부터 추론하는 것 같다.

만약 나의 관찰이 옳다면 이제 우리는 고차 모호성에 대한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와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 오직 경계이동이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대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다. 먼저 맥락고정된 모호한 술어의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에 대해 혼합적 관점이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키가 크다’는 모호한 술어가 맥락 C_0 하에서 사용된다고 하자. 그리고 a_1 부터 a_{500} 까지 더미 시리즈가 있다고 하자. a_1 은 분명히 키가 큰 사람이고, a_{500} 은 분명히 키가 작은 사람이다. 또한 맥락 C_0 하의 발화자가 D_1 이라는 언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D_1 에 따르면, 모호한 술어의 경계

15) 나는 여기서 모호한 술어의 외연이 언어사용자들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모호한 술어의 외연이 능숙한 언어사용자들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일반인들도 이러한 직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여기서 언어적 성향에 대한 단순한 반사실적 조건문 분석이 옳은 분석이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점은 단순한 반사실적 분석이 일상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분석이라는 것이다.

는 a_{221} 과 a_{222} 사이에 있다. 이제 (A), (B)를 고려해보자. 만약 나의 관찰이 옳다면 우리는 (B)의 진리치로부터 (A)의 진리치를 추론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맥락 C_0 하의 ‘키가 크다’는 술어의 경계를 발견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우리는 (B)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참이 아니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A) ‘ a_{221} 은 키가 크고 a_{222} 는 키가 크지 않다’ (맥락 C_0 에서 사용된)

(B) 만약 오바마와 그의 아내가 2010년 8월 31일 오후 7시에 백악관 내의 한 식당에서 사람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a_{221} 은 키가 크고 a_{222} 는 키가 크지 않느냐는 질문(a_{221} , a_{222} 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들이 속한 언어공동체 역시 그들의 언어적 성향을 승인할 것이다.

D_1 에 따르면, 모호한 술어의 경계는 a_{221} 과 a_{222} 사이에 있다. 그러므로 (A)는 참이다. 그러나 우리는 (B)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만약 현실세계에서 관용원칙이 성립한다면 관용원칙은 (B)의 전건이 참인 현실세계와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에서도 성립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B)의 전건이 참인 현실세계와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의 발화자(또는 대화참여자들)가 a_{221} 은 키가 크고 a_{222} 는 키가 크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a_{221} 과 a_{222} 은 쌍으로 함께 고려되고 (관용원칙에 의해) 발화자는 그들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B)는 참이 아니다.

다음으로 맥락고정된 모호한 술어의 더미직관의 문제에 대해 혼합적 관점이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위의 관찰 내용을 맥락을 고정된 더미 전제에 적용해보자. 여기서 더미전제는 ‘모든 x , y 에 대해, x 가 키가 크고 y 가 x 보다 1mm 작다면, y 도 키가 크다’는 문장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더미 전제가 사용되는 맥

락은 C_0 이고, a_1 부터 a_{500} 까지 더미 시리즈가 있다고 하자. a_1 은 분명히 키가 큰 사람이고, a_{500} 은 분명히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제 (C), (D)를 고려해보자. (C)은 맥락을 고정한 더미 전제의 예화들이다. 그리고 (D)는 각각의 더미전제의 예화들에 대응하는 반사실적 조건문들이다. 만약 나의 관찰 내용이 옳다면, 우리는 (D)의 참, 거짓 여부로부터 (C)의 참, 거짓 여부를 추론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C)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D)의 각 문장들이 모두 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D)의 각 문장들이 모두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C)의 각 문장들도 모두 참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D)의 문장들은 모두 참인 반면 (C)의 문장들 중 하나는 참이 아니다.

(C)

(C-1) ‘ a_1 이 키가 크고 a_2 가 a_1 보다 1mm 작다면, a_2 도 키가 크다’(맥락 C_0 에서 사용된)

(C-2) ‘ a_2 가 키가 크고 a_3 이 a_2 보다 1mm 작다면, a_3 도 키가 크다’(맥락 C_0 에서 사용된)

...

(C-221) ‘ a_{221} 이 키가 크고 a_{222} 가 a_{221} 보다 1mm 작다면, a_{222} 도 키가 크다’(맥락 C_0 에서 사용된)

...

(C-499) ‘ a_{499} 가 키가 크고 a_{500} 이 a_{499} 보다 1mm 작다면, a_{500} 도 키가 크다’(맥락 C_0 에서 사용된)

(D)

(D-1) 만약 오바마와 그의 아내가 2010년 8월 31일 오후 7시에 백악관 내의 한 식당에서 사람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a_1 이 키가 크고 a_2 가 a_1 보다 1mm 작다면 a_2 도 키가 크냐는 질문 (a_1 , a_2 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들이 속한 언어공동체 역시 그들의 언어적 성향을 승인할 것이다.

(D-2) 만약 오바마와 그의 아내가 2010년 8월 31일 오후 7시에 백악관 내의 한 식당에서 사람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a_2 가 키가 크고 a_3 이 a_2 보다 1mm 작다면 a_3 도 키가 크냐는 질문 (a_2, a_3 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들이 속한 언어공동체 역시 그들의 언어적 성향을 승인할 것이다.

...

(D-221) 만약 오바마와 그의 아내가 2010년 8월 31일 오후 7시에 백악관 내의 한 식당에서 사람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a_{221} 이 키가 크고 a_{222} 가 a_{221} 보다 1mm 작다면 a_{222} 도 키가 크냐는 질문(a_{221}, a_{222} 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들이 속한 언어공동체 역시 그들의 언어적 성향을 승인할 것이다.

...

(D-499) 만약 오바마와 그의 아내가 2010년 8월 31일 오후 7시에 백악관 내의 한 식당에서 사람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a_{499} 가 키가 크고 a_{500} 이 a_{499} 보다 1mm 작다면 a_{500} 도 키가 크냐는 질문(a_{499}, a_{500} 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들이 속한 언어공동체 역시 그들의 언어적 성향을 승인할 것이다.

먼저 (C)의 문장들 중 하나는 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식적 입장과 결합한 경계이동이론은 인식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한 맥락 내에서 모호한 술어의 날카로운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D)의 문장들은 모두 참이다. 현실세계에서 맥락 내의 발화자(또는 대화참여자)가 D_1 이라는 언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D_1 에 따르면 경계는 a_{221} 과 a_{222}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자.¹⁷⁾ 또한 현실세계에서 관용원칙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17)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D1에 따르면 경계는 a_{221} 과 a_{222} 사이에 있다는 가정이 '만약 오바마와 그의 아내가 2010년 8월 31일 오후 7시에 백악관 내의 한 식당에서 사람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a_{221} 이 키가 크고 a_{222} 가 a_{221} 보다 1mm 작다면 a_{222} 도 키가 크냐는 질문(a_{221}, a_{222} 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참을 함축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해주셨다. 그러나 나의 가정은 위와 같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참을 함축하지 않는다. 심사위원께서 말씀하신 반사실적 조건문은 거짓이 되는데 그 이유는 화자가 위

그렇다면 (D-1)의 전건이 참인 현실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는 발화자가 D_1 을 가지고 있고 관용원칙이 참이며 발화자가 순서쌍 a_1, a_2 를 고려하는 세계이다. 그리고 (D-2)의 전건이 참인 현실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는 발화자가 D_1 을 가지고 있고 관용원칙이 참이며 발화자가 순서쌍 a_2, a_3 을 고려하는 세계일 것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는 (D)의 각 문장들의 전건이 참인 현실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D-221)이 참인 현실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이다. (D-221)이 참인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는 발화자가 D_1 을 가지고 관용원칙이 참이며 발화자가 순서쌍 a_{221}, a_{222} 을 고려하는 세계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실은 서로 비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화자가 D_1 을 가진다는 사실 또는 관용원칙이 참이라는 사실 중 하나는 포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포기되어야 할 것은 전자이다. 즉, 이 때 언어적 성향 D_1 이 포기되고 D_1 은 다른 언어적 성향 가령, D_2 (D_2 에 따르면 경계는 a_{220} 과 a_{221}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자)로 대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세계에서 관용원칙이 언어적 성향에 비해 우선하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1) 세계: $D_1(a_{221}$ and $a_{222})$, 관용원칙, 발화자가 a_1 과 a_2 의 쌍을 고려

(D-2) 세계: $D_1(a_{221}$ and $a_{222})$, 관용원칙, 발화자가 a_2 와 a_3 의 쌍을 고려

...

(D-221) 세계: $D_2(a_{220}$ and $a_{221})$, 관용원칙, 발화자가 a_{221} 과 a_{222} 의 쌍을 고려

...

(D-499) 세계: $D_1(a_{221}$ and $a_{222})$, 관용원칙, 발화자가 a_{499} 와 a_{500} 의 쌍을 고려

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a_{221} 와 a_{222} 이 화자에 의해 쌍으로 고려되게 되고 관용원칙에 의해 이 두 사람은 같은 범주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내가 제시한 대안은 맥락고정논변의 전제 (1)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경계이동이론은 맥락의존적 모호성뿐만 아니라 맥락독립적 모호성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경계이동이론은 맥락독립적 모호성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경계이동이론은 맥락독립적 모호성에 대한 경계사례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인식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려진-경계-없음 문제와 더미직관의 문제를 설명하는 일이다. 경계이동이론가들은 왜 우리가 맥락이 고정된 술어의 경계를 발견할 수 없는지, 왜 우리가 맥락이 고정된 더미 전제에 이끌리는지에 대해 자신들만의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두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나의 대답은 설사 우리가 모호한 술어의 맥락을 고정하더라도 경계이동이론에서 제안하는 관용원칙에 의해 우리의 추론에 다시금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맥락고정된 술어의 경계를 발견할 수도 없고 더미 전제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맥락 하의 문장이 참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 관련된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인지 아닌지 고려한다. 어느 지점에 경계가 있다는 문장(A)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반사실적 조건문(B)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점에 경계가 있다는 문장을 참이 아니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더미 전제의 예화들 각각에 상응하는 반사실적 조건문들((D)의 문장들)이 모두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미 전제의 예화들((C)의 문장들)이 모두 참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제시한 대안은 오직 경계이동이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대답이다. 왜냐하면 현실세계에서 모호성에 대한 의미론이 관용원칙을 포함할 때에만 관련된 반사실적 조건문들이 위와 같은 진리치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8. 가능한 반론들

마지막으로 나의 제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반론들을 살펴본 후에 글을 맺도록 하겠다. 먼저 나의 제안에 따르면, 모호성은 단일한 현상이 아니게 된다. 이에 대해 맥락고정논변의 옹호자들은 맥락을 고정해도 맥락을 고정하기 전과 동일한 종류의 모호성이 남기 때문에 나의 제안은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상인들이 모호성은 단일한 현상일 것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 경계이동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일상인들이 모호성은 단일한 현상일 것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맥락의 존적 모호성과 맥락독립적 모호성이 모호성의 주요한 세 가지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호성의 주요한 세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모호성의 종류를 구분한다면 맥락의존적 모호성과 맥락독립적 모호성은 같은 종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반론은, 나의 제안은 가능세계, 성향, 관용원칙 등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설명 자체가 매우 복잡한데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직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의 제안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상상과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해서 맥락고정된 모호한 술어에 대한 직관을 얻는다는 점은 별로 어렵거나 복잡한 사실이 아니다. 복잡한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과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해서 맥락고정된 술어에 대한 직관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다. 일반인들이 상상과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해서 맥락고정된 모호한 술어에 대한 직관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이기만 하다면 일반인들이 이러한 철학적 분석에 대해 무지하다고 해도 아무런 문

제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제안에 따르면, 화자 또는 대화참여자들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 모호한 술어의 외연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는 그다지 자명한 사실이 아니다. 한 맥락 내의 모호한 술어의 외연이 맥락적으로 두드러진 사람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평가자(assessor)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

누구의 언어적 성향에 의해 모호한 술어의 외연이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경계이동이론가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대답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다. 다시 말하면, 화자(또는 대화참여자들) 대신에 맥락적으로 두드러진 사람이나 평가자를 넣더라도 나의 대답은 똑같이 잘 작동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한승 (2004), “모호성의 다양성”, 『철학』 79집, pp. 211-235.
- 이진희 (2010), “소렌센의 더미와 ‘모호함’의 모호함”, 『논리연구』 13집 2호, pp. 117-134.
- 정인교 (2003), “모호성과 무지”, 『철학적 분석』 8호, pp. 1-27.
- Åkerman, Jonas and Greenough, Patrick (2010), “Hold the Context Fixed, Vagueness Still Remains”, in Richard Dietz and Sebastiano Moruzzi eds., *Cuts and Clouds: Essays on the Nature and Logic of Vagu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75-288.
- Beall, J. C., eds. (2003), *Liars and Heaps: New Essays on Parado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oam (2000), *New Horizons in the Study of Language and Mi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tz, Richard and Moruzzi, Sebastiano eds. (2010), *Cuts and Clouds: Essays on the Nature and Logic of Vagu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ra, Delia Graff (2000), “Shifting Sands: An Interest-Relative Theory of Vagueness”, *Philosophical Topics* 28, pp. 45-81. Reprinted in Darragh Byrne and Max Koelbel eds., *Arguing about Language*, Routledge, pp. 532-552. Reprinted in A.P. Martinich eds., *Philosophy of Language: Critical Concepts in Philosophy*, Routledge, pp. 263-298. Published under the name ‘Delia Graff’.
- Fara, Delia Graff and Williamson, Timothy eds. (2002), *Vagueness*, Aldershot: Ashgate. Published under the name

‘Delia Graff’.

Fine, Kit (1975), “Vagueness, Truth, and Logic”, *Synthese* 30. pp. 265-300. Reprinted in Rosanna Keefe and Peter Smith eds., *Vagueness: A Reader*, Cambridge MA: MIT Press.

Heck, Richard (2003), “Semantic Account of Vagueness”, in JC Beall eds., *Liars and Heaps: New Essays on Parado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6-127.

Keefe, Rosanna (2000), *Theories of Vagu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efe, Rosanna (2007), “Vagueness without Context Change”, *Mind* 116, pp. 275-292.

Keefe, Rosanna and Smith, Peter eds. (1996), *Vagueness: A Reader*, Cambridge MA: MIT Press.

Raffman, Diana (1994), “Vagueness without Paradox”, *Philosophical Review* 103, pp. 41-74. Reprinted in Delia Graff and Timothy Williamson, *Vagueness*, Aldershot: Ashgate.

Raffman, Diana (1996), “Vagueness and Context-Relativity”, *Philosophical Studies* 81, pp. 175-192.

Sainsbury, Mark (1990), “Concepts without Boundaries”, Inaugural Lecture, published by the King’s College London, Department of Philosophy. Reprinted in Rosanna Keefe and Peter Smith eds., *Vagueness: A Reader*, Cambridge MA: MIT Press, pp. 251-264.

Shapiro, Stewart (2006), *Vagueness in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oames, Scott (1999), *Understanding Tr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tanley, Jason (2003), “Context, Interest-relativity and the Sorites”,
Analysis 63, pp. 269-280.

Stanley, Jason (2005), *Knowledge and Practical Inter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on, Timothy (1994), *Vagueness*, London: Routledge.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zma1346@snu.ac.kr

Vagueness and the Context-Fixing Argument

Junhyo Lee

In this paper, I introduce what Boundary-Shifting theories of vagueness (or Contextualism about vagueness) are and what the Context-Fixing Argument is, which is the most powerful and plausible objection to Boundary-Shifting theories. The basic idea of the Context-Fixing Argument is that vagueness still remains even if we hold the context fixed. Many objections based on this simple idea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on Boundary-Shifting theories. It seems that, without a convincing response to the Context-Fixing Argument, Boundary-Shifters must be in trouble. But, oddly, defenders of Boundary Shifters have said very little about this matter. In this situation, Åkerman and Greenough try to defend Boundary-Shifting theories of vagueness by suggesting several answers.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their suggestions and develop a new answer to the Context-Fixing Argument.

Key Words: Vagueness, the Context-Fixing Argument,
Contextualism, Boundary-Shifting theory, Fara